

언론동향(11. 30.)

《언론보도 목차》

1. (국민일보)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탄약고, 문화·평화 공간 탈바꿈 2
2. (경향신문) 퀴퀴한 탄약 냄새 지우고 예술의 향기를 뿜어내다 3
3. (세계일보) 파주 ‘캠프 그리브스’ 2년 만에 전시행사 재개 4
4. (경인일보)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 내일 2년만에 재개 4
5. (경기신문) 심규순 도의원 등 평화 염원 ‘DMZ 155마일 걷기’ 참여 5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문화·평화 공간 탈바꿈

내일부터 ‘탄약고 프로젝트’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민간인출입 통제선(민통선) 내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가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경기도는 12월 1일부터 캠프 그리브스에서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탄약고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의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해 비무장지대(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문화재생사업의 일



환으로 마련됐다.

2018년 8월 ‘DMZ 평화정거장’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잠시 프로젝트 운영을 중단했다. 다행히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2년 만에 전시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탄약고1에서 열릴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탄약고2에서 진행되는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 작품들은 12월 1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 전시되며 캠프그리브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을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서는 가상의 영상을 현실과 접목해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기법인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이승근 작가의 ‘이 선을 넘지 마시오’를 공개한다.

‘설치미술 프로젝트’에서는 2018년 DMZ 평화정거장 당시, 국내 최초로 공개돼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감을 얻은 김명범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원(ONE)’을 다시 선보인다. 이 작품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 박제 시슴의 팔에 죽은 나뭇가지들을 탄약고 천장까지 확장·연결한 작업물이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미 육군 2사단 506연대가 2004년 8월 철수할 때까지 50여년간 주둔했던 미군 반환 공여지다. 경기도가 2013년 건축물원형 그대로를 활용, 민통선 내 유일 역사·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탈바꿈해 개방함으로써 DMZ의 대표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파주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 2년 만에 재개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캠프그리브스를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승화하는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미육군 2사단 506연대가 2004년 8월 철수할 때까지 50여년간 주둔했던 미군 반환공역이다. 경기도가 2013년 건축물 유형 그대로를 활용, 민통선 내 유일한 역사·문화·예술 체험시설로 탈바꿈해 개방함으로써 비무장지대(DMZ)의 대표 문화 예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미디어아트·설치미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를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캠프그리브스의 공간적 특수성을 활용해 DMZ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DMZ 평화장기장(DMZ Peace Platform)'을 계기로 시작했다. 아쉽게 2019년 하반기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으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맞춰 전시를 재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탄약고1에서 열린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탄약고2에서 진행되는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작품들의 전시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0월 15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

먼저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통에서는 가상의 영상을 현실과 정목해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기법인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을 활용한 이승근 작가의 '이 산을 넘지 마시오'가 공개된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바다에 선을 따라 어두웠던 분단의 역사에서 밝은 평화와 희망의 에너지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DMZ와 평화의 가치를 체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154.98㎡ 규모의 탄약고 전체 공간을 영상과 음향, 조명으로 채우며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설치미술 프로젝트'에서는 2018년 DMZ 평화정거장 당시 국내 최초로 공개대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얻은 김명범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원(UN)'을 다시 선보인다. 이 작품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 박제 사슴의 뼈에 죽은 나뭇가지들을 탄약고 천장까지 확장·연결한 작업물로, 분단의 상흔을 안은 채 수년간 방치됐던 곳을 평화와 희망을 그리는 창조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탄약고 프로젝트는 캠프그리브스 홈페이지(dmxcamp131.or.kr)를 통해 신청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관광공사(031-953-697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캠프그리브스를 명실상부 DMZ 대표 명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진 기자(jchoi@kyunghyang.com)



귀귀한 탄약 냄새 지우고



김명범 작가의 '원(UN)', 이승근 작가의 '이 산을 넘지 마시오',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내부 전경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경기도 제공



예술의 향기를 뽐어내다

파주 ‘캠프 그리브스’ 2년 만에 전시행사 재개

미군 탄약고 문화공간 변신 프로젝트
내달부터 미디어아트·설치미술 선봬

외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승화하는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가 2년 만에 돌아온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를 새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탄약고에서 열릴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탄약고에서 진행되는 설치미술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작품들의 전시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10월15일까지 약 10개월간이다.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는 가상 영상을 현실과 접목해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기법인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을 활용한 이승근 작가의 ‘이 선을 넘지 마시오’를 공개한다. 설치미술 프로젝트에서는 2018년 DMZ 평화정거장 당시 국내 최초로 공개돼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얻은 김명범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원(ONE)’을 전시 선보인다.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 내일 2년만에 재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파주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가 다음 달 재개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폐쇄된 미군기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가 12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2019년 하반기 ASF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캠프 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기지로, 2013년 도가 이곳을 민통선 내 역사·문화·예술 체험시설로 고쳐 일반에 개방했다.

탄약고 프로젝트는 캠프 그리브스의 공간적 특수성을 살려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 등을 전시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전시 작품으로는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을 활용한 이승근 작가의 ‘이 선을 넘지 마시오’와 김명범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원(ONE)’ 등이 선보인다.

전시공간은 일반 갤러리와 달리 작품 감상의 몰입감을 위해 공간 전체가 영상과 음향, 조향으로 꾸며졌다. 프로젝트는 내년 10월15일까지 약 10개월간 계속된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심규순 도의원 등 평화 염원 'DMZ 155마일 걷기' 참여

이종인·김강식 의원도 행사 동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민주·안양4), 이종인 부위원장(더민주·양평2), 김강식 의원(더민주·수원10)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열린 'DMZ 155마일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

DMZ 155마일 걷기 행사는 DMZ 평화누리길 주요 구간을 직접 걸어보며 DMZ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김포-파주-연천 평화누리길에 각각 마련된 코스 중 걷고 싶은 길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고, 반환점을 찍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김포의 평화누리길 제1코스 구간을 Ter's DMZ 두만 홍보대사들과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7일 열린 DMZ 155마일 평화누리길 걷기 대회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위원들은 "이번 대회가 도민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를 체험할 수 있도록 평화누리길 활

성화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올해 DMZ RUN행사는 DMZ 155마일 걷기,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동일마라톤 등 3가지로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20-21일, 27-28일 개최됐다. 유전성 기자